

베드로의 고의적 실패

신학박사 조 덕운

[마태복음 26:31-35] 그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기록된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 떼의 양들이 널리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32 그러나 내가 다시 일어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시니 33 베드로가 그 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매 34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 밤에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거늘 35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매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2년을 넘어 진행되는 요즘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위의 대화는 유월절 만찬을 마쳐갈 무렵,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네로 이동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붙잡혀 가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은 모두 흩어지게 될 것이니 수차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갈릴리의 지정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께서 부활하여 오시기를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은 결코 주님을 인하여 실족,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자신 만만한 베드로가 새벽에 수탉이 울기 전에 세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을 결코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주님의 말씀의 정당성을 정면으로 부인하면서 자신의 굳건한 자세를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하신 대로 세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 크게 회한의 통곡을 하게 됩니다.

이 메시지의 제목을 “베드로의 고의적 실패”라고 한 것은 이날 밤 베드로의 실패가 예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베드로에게 경고하시고 실패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신감과 고집이 앞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고의적으로’ 실패한 결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고의적 죄 (presumptuous sin)은 두번 나오는데, 먼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고의적으로, 즉 자기 뜻대로 범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사람은 죽이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민수기 15:30-31] 그러나 그 땅에서 태어난 자든지 타국인이든지 어떤 혼이 조금이라도 자기 뜻대로 행하면 바로 그 사람은 {주}께 수치를 끼치나니 그런즉 그 혼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 사람이 {주}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깨뜨렸은즉 그 혼은 완전히 끊어지고 그의 불법이 그에게로 돌아가리라.

두번째로, 다윗이 전장에 나가 전투에 임하고 있는 장수의 아내인 밧세바를 탐하여 저지르고 그 장수를 죽이도록 한 죄는 고의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악이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죄를 몇 차례나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회중에서 제거되어야 할 사람이 된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왕이라서 그런 처벌에서 면제된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회개한 후에 다시는 그런 범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시편 19:13] 또 주의 종을 지키사 고의로 짓는 죄들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 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곧바르게 되어 큰 범법에서 벗어나 무죄하리이다.

우리는 베드로의 유월절 밤의 실패를 통하여 우리의 실족의 가능성을 보게 되며, 이로부터 우리의 영혼에 유익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 교훈의 핵심은 주님께서 그의 실패를 미리 보셨지만 그가 실패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예방책과 해야할 행동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밤에 베드로가 자신의 능력과 의지에 대한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단순히 주님의 지시들과 예방책을 따랐더라면 그렇게 처참하게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 생활을 하면서 베드로처럼 자신 만만한 태도, 즉 교만한 신앙의 자세를 버리고 조심스럽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방책과 지혜를 찾아 그에 순종한다면 크게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생활을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첫째 지시사항은 제자들이 모두 흩어질 것이 예언되어 있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체포되어 재판 받고 십자가 형을 받게 되는 동안 그들이 흩어지는 것이 당연하며, 다만 개별적으로 갈릴리로 가서 지정된 산에서 대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말씀대로 흩어졌지만, 그들만 대제사장의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불을 쪼이다가 그를 알아본 여종 둘과 남자 한 사람에게 인지되어 추궁을 받게 되자 “나는 그를 전혀 모른다”고 세번이나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 세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그들에게도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난의 기도를 세번 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유월절 만찬을 베불리 먹은 탓인지 졸려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실패의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졸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만 데리고 동산으로 가신 이유를 알려고 노력했더라면 그 분의 고뇌에 찬 기도에 동참하여야 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 중 하나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벤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께서 말고의 귀를 기적적으로 고치시지 않았더라면 베드로 역시 체포되어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처형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심각한 잘못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밤과 다음 날 주님께서 당하실 고난과 죽음의 경험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다만 자신들의 선생님을 체포하러 오는 무리이므로 이들과 싸워야 한다는 적대감만 가졌던 것입니다. 양들이 흩어지는 것처럼 목자가 체포되니 제자들이 흩어져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받아들이지 못했기에 이런 실패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두번째 주님을 부인하자 수탉이 첫번째로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때에도 그 자리를 떠나서 세번째로 부인하는 실패를 회피해야 했지만, 그는 그 자리에 계속하여 불을 쪼이고 있다가 한번 더 주님을 과격하게 부인하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수탉이 첫번째 울 때에 마치 그에게 “떠나라, 떠나라”고 말하는 것처럼 경고의 울음을 울었는데도 그는 이 경고를 무시했고 또 한번 주님을 과격하게, 욕까지 해가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수탉이 두번째로 울었고 그 때야 베드로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한의 통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와의 개인적 면담을 통하여 그를 용서하시고 그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는 자비와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자신의 교만한 생각과 계획이 주님의 지시와 지혜를 앞서가는 ‘고의적 실패’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언행을 주님을 영광되게 하기 보다는 그 분의 마음에 실망과 아픔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래도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실족으로 인하여 깨어지고 피흘리는 마음을 고쳐서 회복시켜 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의 자비에 의지하기 보다는 실패하지 않도록 나의 생각과 교만한 계획보다는 주님께서 미리 보여 주시는 피할 길과 지혜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한다면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의 신앙 생활이 ‘곧바른’ 신앙, 큰 죄에서 벗어나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신앙 생활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